

조진웅 “‘광대들’, 광대 좋아 택했다…배우도 광대”



“광대가 민심의 선봉에 서…그점이 좋아”
 자신의 인생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꼽아
 “그런 거짓말도 용기…우리 영화와 비슷”

배우 조진웅이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조진웅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 관련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영화를 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 것에 대한 선택은 없었다. 광대들에 빠졌다. 광대가 민심의 선봉에 선다. 그게 저는 너무나도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제목은 ‘광대들’이 아니었다. ‘조선공갈패’였다. 이것이 ‘광대들’이라고 바뀐 이유는 광대는

친민, 친한 직업이다. 이들이 사고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계기는 진정성, 삶에 대한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안할 이유가 없는거다”라고 설명했다. 광대는 종종 현대의 배우들에 비유된다. 연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특성이 닮았기 때문이다. 조진웅은 ‘광대를 배우라는 직업에 비유하기도 한다’는 말에 “그런 것 같다. 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광대들의 짓거리’라고 할 때가 있다. 광대도 그렇게 명예가 있는 직업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심을 헤아리고



사람들을 움직인다. 광대라는 미친한 직업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 삶을 시간을 탐진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 이게 내가 이 광대(배우) 일을 하는 목표와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배우와 광대의 공통점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인생 영화로 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를 꼽았는데, “(‘광대들’과) 비슷하게 맞닿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런 거짓말이 용기인 것 같다. 영화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영화적 상상력이 기대돼 있긴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진심이 있다면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 그게 우리 영화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광대들: 풍문조작단’에서 연출자 팔방미인 덕호 역을 맡았다. ‘광대들: 풍문조작단’은 조선 팔도를 무대로 풍문을 조작하고 민심을 뒤흔들던 광대 5인방이 조선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로부터 세조의 미담을 만들어 내라는 망을 받고 일을 꾸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실제 세조실록에 기록된 40여건의 기이한 현상을 모티브로 했다. 한편 ‘광대들: 풍문조작단’은 오는 21일 개봉한다.

‘캠핑클럽’ 성유리·이진, 원조 비글들의 진가…웃음 포텐

환상의 만담 케미

‘캠핑클럽’ 성유리와 이진이 포장 없는 입담으로 ‘웃음 포텐’ 터뜨렸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캠핑클럽’에서는 핑클 멤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장면이 그려졌다. 캠핑카에서 홀로 쉬고자 했던 이진은 이효리가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르길 일을 부탁하는 바람에 목격한 바를 이루지 못한 반면, 성유리는 멀리 떨어진 소나무 숲에서 책을 읽고 잠시 눈을 붙이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이진은 계속해서 자신을 찾는 이효리에게 “언니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그 동안 자신이 심심찮게 불러온 성유리를 떠올리며 영상 통화를 시도했다. 잠시 떨어져 있었으나 두 사람은 마치 오랜만에 통화하는 듯 다정한 말투와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이진은 성유리에게 “내가 널 찾는 것도 이런 느낌이었나? 미안했다”며 급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모았다. 이후 성유리는 이진을 찾아와 아이스크림 사달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진울 커피’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난 이제 이가 안 좋아 아이스크림

을 잘못 깨물어 먹는다”, “난 요즘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다” 등 서로 찌내 나는 웃픈 얘기들을 마치 배틀하듯 개그로 승화시켜 재미를 선사했다. 또한 이진은 성유리에게 “얇은 김에 안경 닦자”며 안경닦이를 건네는 섬세한 모습으로 훈훈함을 자아내다가 성유리가 안경닦이에 물을 묻히려 하자 바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개인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 이에 성유리는 “알았어. 수잔수시로 잔소리”이라며 “근데 아까 (전화 통화하면서)반성했다고 하지 않았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고 해 그녀를 당황케 했다. ‘진울 커피’의 재치 있는 입담은 캠핑카로 돌아가는 길에도 이어졌다. 두 사람이 환상의 만담 케미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긴 것. 이진은 성유리 사진을 찍어주며 예쁘다고 감탄하다 이내 “그만해 이제”라며 단호박의 면모를 보였고, 성유리는 자기 광고 찍게 해달라며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해 보는 이들을 폭소케 했다. 이를 보던 이진은 “(본인 사진으로 인해)광고 연락 오면 10%만 달라”며 농담을 던졌고, 성유리는 한발 더 나아가 “세금 떼고



줄게”라며 능청스럽게 받아치는 센스를 발휘했다. 그런가 하면, 저녁 식사 후 사륜 바이크를 타기 위해 헬멧을 쓴 이진은 성유리에게 “멋있지?”라고 불렀으나, 그녀는 “독수리 오형제 같다”며 깨알 같은 말장난으로 웃음코드를 저격했으며, 이들은 바이크의 스피드를 즐기는 반면 매력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과거 핑클 활동 모습을 보면서 이진은 어깨를 한껏 올리고 춤 추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으며, 성유리는 자신의 모습을 셀프 디스하거나, 19급 노래 가사까지 서슴없이 얘기 하는 털털함

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처럼 이진, 성유리는 화려한 입담으로 안방극장에 유쾌함을 안겨준과 동시에, 일상 모습을 통해 소탈한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 웃기면서도 진솔한 매력,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진가를 ‘캠핑클럽’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대중들이 ‘진울 커피’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호응해주는 것일 터. 이에 앞으로 성유리와 이진이 또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캠핑클럽’은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데뷔 임박’ X1, 타이틀 곡은 ‘플래시’



총 7트랙 수록

보이그룹 X1(엑스원)의 데뷔 타이틀곡이 공개됐다. 19일 X1(한승우, 조승연, 김우석, 김동신, 이상, 송형준, 남도현)의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미니 앨범 ‘비상 : QUANTUM LEAP(비상 : 퀀텀 리프)’ 트래킹리스트가 적힌 이미지가 게재됐다. 공개된 트래킹리스트 이미지에 따르면 X1의 데뷔 타이틀곡은 ‘플래시(FLASH)’이다. 이와 더불어 인트로곡 ‘스탠드 업(Stand Up)’, ‘웃을 때 제일 예뻐’, ‘괜찮아요’, ‘유 갓 잇(U GOT IT)’, ‘움직여(MOVE)(Prod. By

ZICO)’, ‘_지마(X1-MA)’까지 총 일곱 트랙이 수록됐다. 특히 Mnet ‘프로듀스 X101’을 대표하는 곡 ‘_지마’와 콘셉트 평가 곡이었던 ‘유 갓 잇’, ‘움직여’는 11명 멤버들의 목소리로 재 녹음한 X1 버전이다. ‘_지마’는 오직 데뷔 앨범 CD에서만 감상할 수 있다. X1의 데뷔 앨범은 11명의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 날아오르겠다는 희망을 담은 ‘비상’ 버전과 대도약을 꿈꾸는 X1의 의지를 담은 ‘QUANTUM LEAP(퀀텀 리프)’ 버전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대조되는 두 버전의 멤버별 개인 콘셉트 이미지를 공개한 바 있다. X1은 오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미니 앨범 ‘비상 : QUANTUM LEAP(비상 : 퀀텀 리프)’를 발매한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쇼케이스와 콘서트 가 결합된 ‘프리미어 쇼콘(Premier Show-Con)’을 개최하고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